

급증하는 졸업유보 대학-학생 '신경전'

학생 "기업들 재학생 선호...취업 준비 위해 불가피하다"

학교 "대학평가 불리·수용 한계...비용부과 어쩔 수 없어"

졸업유보생을 일컫는 'NG'(No Graduation)족과 대학 간에 졸업유보 조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학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졸업유보제'를 이용하는 해당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대학측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졸업유보제를 신청한 대학생들은 지난 2012년 911명에서 2013년 1019명, 지난해 121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대도 지난 2012년 졸업유보제도가 시작될 때만 해도 27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무려 1458명으로 폭증했다.

기업의 재학생 선호 경향으로 인해 공채·어학 연수·공모전 등의 준비를 위해 졸업유보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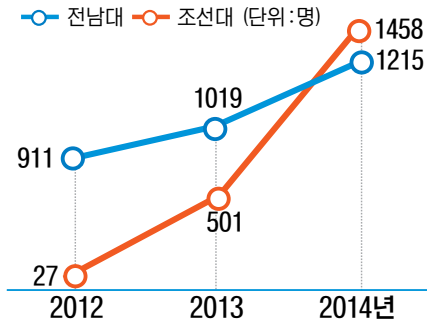
졸업유보제 이용자들이 늘면서 학교측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졸업을 유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학생당 전임교원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려할 수 없다는 게 학교측 입장이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던 대학 스스로 이용자를 축소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조선대의 경우 지난해 27일 '졸업유보제 세칙 개정안'을 새롭게 공개, 학생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 졸업유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한 과목(학점당 5만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졸업을 미룰 경우 비용 뿐만 아니라 학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졸업을 유보하려는 학생들은 유보비(10만원) 외에도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는 과목(통상 3학점)을 택해 수강해야 하는 형편이다. 조선대는 또 여름 학기부터는 학생들의 졸업유보 신청 횟수도 축소하고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김보

■ 2012~2014년 졸업유보 신청현황



? 졸업유보제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기준을 충족해도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졸업을 미루는 것을 승인하는 제도

(28·조선대 4년)씨는 "한 학기 동안 졸업유보 신청을 한 뒤 서울 공무원 고시학원에 등록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3학점짜리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할 처지"라며 "25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난데없는 학점 걱정까지 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했다.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김술빈(경제학과

4년)씨는 "학교측이 학생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은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다, 졸업유보생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도서관·통학차량 등 학교 시설에서도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만큼 부득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 광주여대(학기당 2학점)와 송원대(3학점)도 졸업유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생의 경우 졸업유보 학생들에게 별도 수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기성회비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전남대는 이와 별도로 졸업유보를 신청한 학생이 해당 기간 내 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의 6분의 1을 추가로 내는 방안도 운영중이다. 전남대 1학기 유보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3만3900원·공학계열 18만1300원 등 평균 16만6100원 선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졸업유보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광주대·광주여대·동신대·목포대·송원대·순천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9곳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 해질 18:01 | 달뜨기 16:41 | 달지기 05:56

촉촉한 피부 유지하세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3/7	보성	맑음	-4/6
목포	맑음	-3/6	순천	맑음	-1/7
여수	맑음	0/7	영광	맑음	-5/4
나주	맑음	-4/7	진도	맑음	-3/6
완도	맑음	-2/7	전주	맑음	-5/5
구례	맑음	-6/7	군산	맑음	-5/5
강진	맑음	-4/7	남원	맑음	-7/6
해남	맑음	-4/7	홍산도	맑음	2/5
장성	맑음	-5/6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54	13:44	06:21	19:02
여수	08:36	20:42	02:04	14:40

◇주간 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	☀	☀	☀	☀	☀	☀
-3/8	-1/4	-2/4	-2/4	-2/5	-3/3	-3/5

생활고 비판 여수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생활고를 비판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30분경 여수 신기동 J아파트 박모(24)씨 집에서 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옆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놓여있었고 유서에는 "함께 죽으려 했는데 혼자 살아나와 미안하다. 부인과 아들은 화양면 용주리 바다에 있다"고 쓰여있었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5시10분경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선착장 앞 바다에서 박씨 부인 황모(26)씨와 아들(4)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황씨는 조수석, 아들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부부가 최근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가 생활고를 비판, 가족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선고 공판 11일로 연기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예초 지난 30일로 예정됐던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1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적용 혐의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지면서다.

검찰은 앞서, 노 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600만원, 벌금 2억9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속도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안내면 10배 물어내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 부과 통행료로 최대 10배까지 부과·수납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 기한을 깜박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축소 안돼"

전국 시·도교육감들 박대통령 개혁 발언에 우려 표명

장국영 광주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국영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건의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학급 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장

교육감은 전했다.

장 교육감은 "장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교육부금 비율을 낮추기보다 교육재정 방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말한 것이고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황 부총리는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황 부총리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유보 통합의 법률·재정 확보,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금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편성돼 있는데 추경 예산 편성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자고 교육감들끼리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목표액 못채운 '사랑의 온도탑'

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인 100도를 기록하지 못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서 33억92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했으나, 최종 모금액은 32억3628만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233-9582 (중)구오팔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도스코리아 '꿈, 김사연' 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골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